불교명상·깨달음 상관관계 살핀다

한국명상지도자협, 6월 29일 첫 명상지도자포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6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명상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국명상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다양한 명상법을 수련 보급하는 명상 현장 지도자들이 모여 명상의 대중화, 생활화를 기치로 명상전문지도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협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근본불교의 위빠사나 명상법을 비롯하여 대승과 티벳, 화두참선, 그리고 명상상담 분야까지 다양한 명상 단체와 지도자들이 참여해 '깨달음'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제기된 불교계 내 다양한 깨달음 논쟁에서 더 나아가 현대화된 명상의 입장에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불교수행과 명상의 접점을 찾는다.

박희승 명상지도자협회 이사는 "지금 지구촌에는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이제 명상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심리 치유와 평상심 회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글, 삼성 같은 첨단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명상을 교육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명상연구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명상이 교과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명상은 깨달음의 종교 차원을 넘어 기업, 교육, 의료, 스포츠, 산업 영역에까지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명상과 참선, 위빠사나와 간화선 등과 깨달음의 관계를 고찰해 그동안 현장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명상 주제를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초기명상부터 통합명상까지
시대별 명상전통, 발전 논의

이번 포럼에서 동사섭 프로그램으로 명상의 현대화를 열어 온 용타 스님(명상지도자협회 명예회장)이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상임이사인 목우선원 인경 스님의 사회 하에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 원장의 '초기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오상목 행복수업 교장의 '티벳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장 지운 스님의 '통합명상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의 '참선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이 각각 발표된다.

또 김재성 자애통찰명상원 원장,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행불선원 선원장 월호 스님, 수월관음명상센터장 수월스님의 분야별 토론도 진행된다.

상임이사 인경 스님은 "깨달음이란 대승불교의 화두 앞에서 명상이 답을 구하는 차례다. 개인적 마음치유와 안정을 넘어 사회고 해소와 실천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명상분야의 확대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불교 가르침에 대한 명상 접근을 짚는 것은 의미가 깊다"며 "이후에도 명상의 사회적 효과, 불교 포교에서의 명상과의 접점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명상 대중화와 인류 행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상포럼은 협회 소속 명상지도사 외에도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02)953-5307

대불련 동문, '청년불교 부흥' 원력 결집

대불련 총동문회, 6월 22일 선운사서 전국동문대회

청년불교 진흥 마애불 기도
동문 원력 한데 모아 결의

청년불교 부흥을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가 원력을 다시 모은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최근 대불련 지회 복원 움직임에 맞춰 동아리방 리모델링, 장학금 지원, 캠퍼스 홍보 후원 등 청년 포교에 역주한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6월 12일 서울 견지동 홍성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7회 전국동문대회 개최에 대해 발표했다. '화합과 정진으로 하나되는 대불련'을 캐치프레이즈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고창 선운사와 고창성송체육회관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동문대회는 500여 대불련 동문들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미래불교 활성화 결의와 젊은 불자 육성 발원 기도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불련 총동문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청년포교 비전을 선포한 대불련 총동문회는 최근 소멸 지회 복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동문대회서는 이러한 원력을 다시 결집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결의문에서는 현재 65곳인 대불련 지회를 10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멸지회 복원 TF팀을 운영하고, 지회 동문 및 재학생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하며, 대학별 불교동아리와 인근 사찰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대회 첫날에는 입재식과 함께 대불련 동문과 재학생들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지며, 둘째 날은 도솔암 사찰 순례, 일주문 앞에서 사천왕문까지 삼보일배, 명상 수행 등도 진행된다.

백효흠 회장은 "대불련 총동문회는 15만 동문이 있는 교계 최대 동문조직"이라며 "불교 미래인 청년불자들을 양성하는데는 대불련 동문들의 힘이 절실하다. 아직까지 전체 동문들의 원력을 이끌어 내기에 미흡하고 보다 확산 시키기 위해 동문들의 결집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대불련의 미래와 함께 한국불교 발전을 발원하며 총동문회가 추진하는 청년불자 육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번 전국동문대회 이후 대불련 총동문회는 사단법인 대불을 통한 청년사업도 본격화한다. 사단법인 대불은 대불련 40주년을 계기로 구성된 종교법인으로 2020년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유선재 수석부회장도 "매년 4개 지회 복원이 목표다. 학생 친화적인 동아리방 리모델링, 템플스테이 지원 등으로 대학 포교, 청년 포교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효흠 회장은 "대불 10주년을 앞두고 불교 콘텐츠 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산실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통해 청년불자 육성을 이끌겠다. 대불련 살리기 운동도 대불을 통해 새로운 불사로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소금 묻으며 火魔 막는 발원을

6월 7일, 양기가 가장 충만한 날인 음력 5월 5일 단오을 맞아 조계사는 '단오재 화기애애(和氣愛愛)'를 봉행하고 신도님 가정에 행복과 화재예방을 기원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대웅전 부처님전에 모셨던 소금단지를 의식단으로 이운하고, 한자로 물 수(水)자를 쓴 종이로 봉안했다. 4개의 소금단지는 신도들의 화엄성중 정근 속에 조계사 앞마당 해태상 주변으로 하나씩 묻혔다. 바닷물로 불기운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주지 지현스님과 대중스님께서 80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모시고 청포물에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노덕현 기자

고성 산불 이재민 꾸준한 지원 눈길

아름다운동행 6월 11일 속초·고성 찾아 물품 지원

불교계가 고성 속초 산불 이재민 지원에 꾸준히 나서 눈길을 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은 6월 11일 강원도 속초시청과 고성군청을 잇달아 방문해 이재민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조계종은 지난 4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산불 피해지역을 위로 방문했다. 이어 불교 각계의 위문과 피해복구 지원이 이어졌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이날 속초시청에는 약 4000만원 상당의 43인치 LED TV 64대를, 고성군에는 5000여 만원 상당의 525L냉장고 75대를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많은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줬다"며 "스님과 불자들의 힘을 받아 하루빨리 피해지역이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신흥사 낙산사 등 지역 사찰에서도 힘을 보태주고 있다. 지속적인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길탁 속초부시장도 "피해 이재민들에게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6월 10일까지 산불 피해복구 기금으로 3억 9720만원이 모연됐다. 특히 사찰의 동참 외에도 한구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한 청년들의 동참과 개인후원자들의 동참도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완비 추진

문화재청 미래비전 전략 발표

개청 20주년을 맞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관련 행정을 일신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오는 2022년까지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을 완비하고 문화재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월 11일 서울 삼성동 민속극장 풍류에서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우리 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6대 핵심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현재의 지정 위주의 문화재 관리가 아닌 목록주의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의 한국의 지정주의 문화재 관리체계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예산과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시기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지 못한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보존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단점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호에 걸맞은 목록주의 등 새로운 보호방식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보호 방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인식 범위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략이다. 현재까지 문화재 행정은 점(點)과 선(線), 개별 문화재 위주의 보존 관리 범위를 보여줬다. 문화재청은 이를 면(面)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존·방재의 과학화 역시 주목할 만 하다. 특히 문화재청은 2022년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을 100% 설치할 것을 공언했다. 2040년까지 석조·동산 문화재의 첨단 방재시설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새롭게 발표하는 문화유산 비전과 핵심 전략은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문화유산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